

# 광주 생산 기아차 '쏘울EV' 내년에도 잘 팔릴까

〈전기차〉

### 정부 보조금 1500만원 연말폐지... 가격 급상승

### 저탄소차 협력기금으로 대체... 판매 차질 우려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연말 폐지에 따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EV'의 향후 판매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아차가 최첨단 기술력을 투입한 최신 전기차인데다 각 지자체의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서 잇따라 공모 신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차 가격이 급상승해 판매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 환경부는 도입 첫해 대당 1720만원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중이다.

하지만 1500만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이 내년부터 사라지면 전기차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던 취득세 세제 혜택이 내년에 도연장될지 불투명하다.

기아차의 쏘울EV를 비롯, 한국

GM의 스파크, 르노삼성의 SM3 등 전기차 출고가는 3500만~4300만원 선에 이른다. 대부분 소형~준중형급인 이들 차량은 같은 모델의 휘발유 차량과 비교하면 출고가가 2배를 넘는다. 정부보조금과 각 지자체(광주시 500만원)의 보조금 덕분에 전기차 판매량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2011년 338대였던 전기차 등록대수는 올해 말 15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4월 출시한 쏘울EV로 TV 광고까지 실시하며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아차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쏘울EV가 출시되자마자 단숨에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선두로 올라

섰기 때문이다. 실제 쏘울EV는 이달 광주시가 실시한 상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분(18대) 공모에서 26대의 신청차 중 18대를 차지했다. 74대를 공모한 부산시의 전기차 보급사업에는 총 300대가 신청됐는데, 이중 가장 신청이 많은 차량 역시 127대의 쏘울EV였다.

정부는 현재 폐지되는 전기차 보조금 대신 내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통해 다른 방식의 구입비용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다. 보조금 재원이 환경행 현행 제도 대신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로 보다 많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조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공청회와 외국사례 등을 통해 보조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랑스 7000유로(1000만원), 중국 6만위안(1055만원), 일본 100만엔(1070만원)의 사례를 볼 때 현행 제도에 준하는 금액이 지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EV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구입 비용과 정부 보조금 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당장 판매 전망이 어렵다"며 "정부가 전기차와 관련한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당분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신세계,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광주신세계는 지난 26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2층 동산아트홀에서 광주지역 학교장, 어린이재단, 장애인총연합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은 효행·선행 학생 13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1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995년 개점 이래 매년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을 전달해온 광주신세계는 올해부터 3000만원을 증액, 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기업 지난해 1000원어치 팔아 46원 벌었다

### 한은 경영분석... 영업이익률 4.6% 10년만에 최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용기계와 조선·건설 등 일부 취약업종의 수익성 악화로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속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1541곳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주요 비상장기업 169곳의 지난해 매출영업이익률은 4.6%로 2012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3년 이후 최저치다. 매출영업이익률은 제조·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의손익을 빼고, 순수한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표다. 매출영업이익률이 4.6%라는 것은 1000원어치를 팔아

46원을 벌었다는 뜻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뺀 나머지 조사 대상 기업의 매출영업이익률은 2012년 3.8%에서 지난해 3.4%로 하락률이 더 커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매출영업이익률이 5.7%로 2012년과 같았던 반면 비제조업은 3.0%에서 2.7%로 하락했다. 제조업 가운데는 조선(4.1%→0.1%), 비제조업 가운데는 건설업(0.8%→-1.2%)의 매출영업이익률이 하락이 두드러졌다.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또한 1년 사이 4.5%에서 3.2%로 하락했다. 이는 1000원어치를 팔아 실제로 손에 쥘 돈이 32원이라는 뜻이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인 이자보상비율은 같은 기간 379.6%에서 399.1%로 다소 높아졌다. 이는 매출영업이익률이 줄었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이자 부담이 더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수익성과 함께 성장성도 나빠졌다.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4.9%)보다 크게 둔화한 0.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1%→0.7%)과 비제조업(6.5%→0.8%)의 매출액 증가율이 모두 급감했다.

박성빈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지난해 생산자 물가와 수출 물가가 떨어지고 원재료 가격도 하락했다"며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것은 이런 가격 요인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 지역 우수방수제품 '루바니' 선택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특별매장에 광주지역 우수중소기업인 '루바니'의 가방과 앞치마, 우의 등이 선보였다. 백화점은 오는 5월1일까지 생활방수가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들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은행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대박 마이카대출'** 광주은행이 좋은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대박 마이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자동차 할부금융상품을 이용한 고객 등이다.

타 금융권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이 이율 안고 해결한 뒤 직접 대출해준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전 차종, 16인승 미만 승합차, 적재량 1t 이하 화물차다.

대출금액은 신용등급·연소득에 따라 신차 6000만원, 중고차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자동차세, 신용(체크)카드 이용, 하이패스카드 발급 등 우대요건 충족 시 최저 4.61%까지 적용한다.

또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신차 구입자금 결제 시 최대 1.5%의 적립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득·등록세 등 부대비용 납부 목적으로 광주은행 카드를 신청하면 1% 금리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상품개발팀 박기원 팀장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이 상품에는 광주은행에서 자동차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고객이 대박 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저금리로 설계해 신청자뿐 아니라 고금리인 중고차 대출과 제2금융권 자동차 대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땐 피해액 3배 보상

### 금융위, 징벌적 손해제 도입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을 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상당히 좁

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 법체계가 맞지 않다고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이미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어 입장을 선화했다. 대

신 금융회사가 저야 할 책임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검토됐던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무위는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참여해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                         |                        |                     |                           |
|-------------------------|------------------------|---------------------|---------------------------|
| 코스피지수<br>1969.26(-2.40) | 코스닥지수<br>556.96(-0.48) | 금리(국고채 3년)<br>2.88% | 원·달러 환율<br>1035.50(-6.50) |
|-------------------------|------------------------|---------------------|---------------------------|

창사 62주년

## 미래의 꿈을 쏘아올릴 인재들의 상실 고흥을 주목하세요!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고흥군의회**

http://www.igoheung.com